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4주년 기념

# 이태석 기념 영화제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 31일(수)

| 주최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 주관 |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인사말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6월 1일부터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컨대 2020년 2월 이후 무려 3년 4개월 만에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 셈입니다.

지난 3년여의 고립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적 동물인 우리들의 관계를 부지불식간 단절시키고 소외시킨 못 아픔들이 포함됩니다.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 톤즈에서 행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속히 고립에서 소통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이태석 신부 선종 13주기를 맞이하여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개최해 오던 학술 심포지엄을 잠시 쉬고 조출한 영화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개봉된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이태석 신부의 삶을 차분히 되새겨 보기로 하였습니다. 구수환 감독의 2020년 개봉작 「부활」과 이우석 감독의 2022년 개봉작 「이태석」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져 올해는 영화제 본연의 성격에 맞게 대면으로 다 같이 모여 스크린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영화제에 오셔서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최석진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4주년 기념

## 이태석 기념 영화제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31일(수)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 프로그램

#### 5월 30일 (화)

14:00-16:00

영화 상영 | **부활**(2020)

16:00-17:00

좌담회 .....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김택중**  
인제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김성리**

17:00

기념 촬영

#### 5월 31일 (수)

14:00-16:00

영화 상영 | **이태석**(2022)

16:00-17:00

감독과의 대화 ..... **이우석**

17:00

기념 촬영





# 이태석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1962년 10월 17일 - 2010년 1월 14일

- 1962. 10.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 1975. 2. 천마초등학교 졸업
- 1978. 2. 부산대신중학교 졸업
- 1981. 2.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81. 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1987.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8.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1991. 4.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 1991. 8. 살레시오회 입회
- 1994. 1. 살레시오회 첫 서원
- 1995. 1. 서울특별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사목실습
- 1996. 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수료
- 1997. 1.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유학
- 1999. 8. 아프리카 남수단 와랍주 톤즈(Tonj) 첫 방문
- 2000. 4. 살레시오회 종신서원
- 2000. 6. 부제 서품,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 졸업
- 2001. 6. 사제 서품
- 2001. 7.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임상연수
- 2001. 12. 남수단 톤즈 부임
- 2003. 12. KBS 1TV「한민족 리포트: 아프리카에서 찾은 행복 - 수단 이태석 신부」방송
- 2006. 1. 후원모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결성
- 2008. 11. 대장암으로 투병 시작
- 2009. 1. 후원모임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결성
- 2010. 1. 선종(14일 오전 5시 35분)
- 2010. 1. 전남 담양군 천주교 광주교구 공원묘원 내 성직자·수도자묘역 안장(16일)

## 수 상

- 2005. 11. 제7회 인재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 2007. 3.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 2009. 12.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공동 수상
- 2010. 12.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 2011. 7. 제1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저 서

- 2009. 5.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생활성서사)
- 2011. 7. 유고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다른우리)

# 부활 (2020)



장르 | 다큐멘터리  
 감독 | 구수환  
 촬영 | 이재열, 김종갑, 김성미, 이강윤  
 조명 | 조정관  
 미술 | 강새미  
 편집 | 장지은  
 음악 | 나영호  
 사운드 | 전성혁, 허석  
 DI/현상 | 김정호  
 제작사 | (주)중헌홀딩스  
 배급사 | (주)중헌홀딩스  
 개봉일 | 2020년 7월 9일  
 상영시간 | 110분 12초

## 시놉시스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톤즈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야기  
 「울지마 톤즈」 후속 영화, 「부활」  
 아프리카 수단에서 헌신하다 마흔 여덟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  
 십 년 후 그분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  
 의사, 약사, 공무원, 의대에 다니는 제자만 40여 명.  
 놀라운 것은 모두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신부가 돌아왔다며 기뻐한다.  
 십만 킬로미터 대장정, 일 년간의 추적.  
 인간이 인간에게 꽃이 되어 주는 감동을 공개한다.



**구수환** (사)이태석재단 이사장, 영화감독, PD

필모그래피 부활 (2020)  
 울지마 톤즈 (2010)  
 KBS 스페셜 (2016.2.18-2019.9.26)  
 KBS 추적 60분 (2005-2008)



## 이태석 The Power of Love (2022)



장르 | 다큐멘터리  
감독 | 이우석  
제작 | 김석현  
촬영 | 오현태  
편집 | 이우석  
내레이션 | 임형주  
제작사 | 드림채널  
배급사 | THE 픽처스  
개봉일 | 2022년 12월 29일  
상영시간 | 82분

### 시놉시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故 이태석 신부 사제이자, 교육자, 의사 그리고 톤즈 브라스밴드의 아버지! 이태석 신부 선종 이후 10년 그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태석이 사랑한 남수단, 톤즈... 그곳의 또 다른 이태석들 이태석 신부가 만들었던 브라스밴드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국에 유학 온 아이들은 지금 그 꿈을 이루었을까? 한국과 남수단 케냐까지 이태석 신부의 자취와 흔적을 더듬는다.



**이우석** 영화감독, PD

필모그래피 이태석 (2022)  
AD 2100 기후의 반격 3부작 (MBC, 2017. 2. 6-2017. 2. 20)

# 이태석의 삶

의사이자 살레시오회 수도사제였던 이태석.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그의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Tonj)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의 세례명에 성을 덧붙여 그를 '쥘리(John Lee)'라고 불렀다. 20년 넘게 이어진 오랜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톤즈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쥘리 신부는 자상한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였다.

이태석은 1962년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광역시 남부민동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4남 6녀 가운데 아홉째로 태어났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놀이터와도 같았던 집 근처의 송도성당을 다니면서 일찍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활발하고 감수성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갔다. 그에게 성장 과정의 가난은 오히려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적 자각의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훗날 톤즈의 가난한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태석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뒤 군의관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그는 안정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가톨릭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와 가족의 만류를 눈물로 설득한 이태석은 1991년 살레시오회에 입회하고, 이듬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1997년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로 유학을 떠난 이태석은 자신의 선교지를 찾던 중 1999년 여름방학 기간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남수단의 톤즈를 최초로 방문하였다. 톤즈의 열악하고 비참한 모습에 크게 놀란 이태석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2001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 이태석은 같은 해 12월 처음 결심대로 톤즈로 다시 갔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톤즈에서 차분히 의료와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 나갔다.

이태석은 톤즈에서 반경 100 km 내의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200명, 많게는 3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한센병 같은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부족간 전쟁으로 총상이나 자상을 입은 환자들도 이태석의 손을 거쳐 갔다. 이태석은 급한 대로 "마른 풀과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움막 같은 집"을 최초의 진료소로 삼았다. 이 초라한 진료소는 2004년 그가 직접 벽돌을 구워 가며 지은 12개의 병실이 있는 시멘트 건물로 발전하였다.

이태석은 살레시오회를 창설한 돈 보스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은 이곳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전쟁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초·중·고등학교 11년 과정을 차근차근 꾸려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태석은 학생들에게 손수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여 주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음악반은 훗날 35명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부로 성장하였다.

공식 후원회인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가 결성되고, 톤즈의 의료선교와 학생교육도 본궤도에 올라 한창이던 2008년 11월, 이태석은 건강검진에서 예기치 않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다. 투병 중에도 이태석은 늘 톤즈와 아이들을 잊지 않고 걱정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이태석은 2010년 1월 14일 오전 5시 35분 선종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이태석은 48세의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글: 인제의대 인문사회학연구소 교수 김택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473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TEL: 051-890-6625 FAX: 051-895-1864  
홈페이지: <http://med.inje.ac.kr>